

아름다운 오해

원작/안톤체홉
연출/김태진

12월 16일~19일
PM5 : 00, 7 : 30

연출의 변

작품이라기 보다 작업이었다는 말을 우선하고 싶다.
체홉을 재구성하느냐, 체홉의 정통성을 그대로 보여주느냐에 고민했고,
결국, 체홉의 해체보다는 정통성에 치중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체홉의 사실주의는 인간의 내면과 언어의 불일치,
그것은 곧 갈등으로 연결되고 만다.
이것이 인간의 일상이라고 한다면
이 작업 역시 매우 인간적이고, 비인간적인 면을 함께 내포했다 하겠고,
그것이 바로 가장 인간적인 것일게다.
지금껏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주신 배우, 스탭진들께 감사드린다.

작품해설

인간의 인생에서 비교적 중요한 부분인 결혼,
한 남자의 청혼으로 빚어지는 헤프닝
여기서, 인간이 가진 다면적인 성격들을 아기자기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체홉의 소설이나 희곡들은 잔잔하게 우리들에게 파고드는지
모르겠다.
인간이 불합리한 언어의 동물이라면 이극의 불합리한 언어는 사건의 갈등과 해결에 커다란 역할로 등장한다.
합리적인 사고와 불합리한 행동, 언어
그리고, 소박한 인간들의 모습.



CAST



나탈리아/김 현 경



츄부코프/박 동 민



로모프/김 영웅



STAFF



연출/김 태 진

- 무대장치/박 병 철
- 조 명/이 판 원
- 음 향/김 보 영
- 의 상/이 근 희

제4회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참가극단

- ◎광주(극단Y)
- ◎인천(극단마임)
- ◎부두극장
- ◎부산무대
- ◎장우기획작품

- 놀부전
- 최규호의 판토마임 “무제”
- 아름다운 오해(원제 : 청혼)
- 연약한 침입자
- IF(만약...) 부제 : 칼로물베기

■주최 : 부산소극장협의회 ■주관 : 부산문화이벤트
■후원 : 부산직할시

*본 공연은 '93년 부산직할시 문예진흥기금으로 공연됨